

|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교환

돗토리현의 환경현상과 과제

1. 환경선진현을 향한 차세대 프로젝트

돗토리현에서는 「돗토리현관 환경관리시스템 (TEAS : 테스)」 창설이나 「돗토리현 주차시에 엔진정지 추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현이 독자적인 시책으로 전개해 현민이나 기업 등과 함께 환경에 배려한 활동을 진행시켜 왔다.

그 결과 풍력발전 등의 자연 에너지의 도입이나 TEAS가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 조금씩 침투해 리사이클 사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산업의 창출 등 어느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(2006 년도 실적) 은 1990 년과 비교해 약 10%나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.

그래서 2008 년에는 지구 온난화방지나 순환형사회 만들기 등 일본국내를 리드하는 환경선진현을 목표로 현민과 협동해서 환경활동에 더욱 노력하는 「환경선진현을 향한 차세대 프로그램」 을 책정했다.

2. 돗토리현 지구온난화 방지조례

지구온난화는 지구전체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,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안정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류공통의 과제이며, 돗토리 현에서도 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.

이에 따라 본현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해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현,현내사업자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시책의 기본이 되는 「돗토리현 지구온난화 방지조례」 를 현의회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2009 년 3 월 27 일에 책정했다.

3. 자연환경보호

돗토리현은 다이센(大山)을 포함한 녹음이 풍부한 산들과 국제습지조약 습지에 등록된 나카우미(中海)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다.

그러나 현내의 호수늪 (고야마이케,도코이케,나카우미) 의 수질은 바람직한 수질목표로 정한 환경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나 수질정화활동에 노력하는 주민단체,NPO 등과 연계해서 자연재생을 위한 대처방안을 실시한다.

4. 지구환경보전을 향한 활동 추진과 국제연계

2007 년 10 월에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(境港市)를 중심으로 개최된 「제 12 회 동북아시아지역 국제교류 · 협력 지방정부서미트」 에서 서미트 참가지역이 연계해서 온난화방지 등의 지역환경 보전에 대처해 나가는 「환경교류선언」 이 채택되었다.

이 선언에 입각해 다음해 2008 년에 「동북아시아 환경보호기관 실무자협의회」 를 설립해 각지역에 공동된 환경과제인 「사막화방지 · 황사」 「국제습지 · 철새」 의 부회를 설치해 정보교환을 하기로 했다.